

사업 평가서

하반기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업적인 평가만으로는 전체의 사업을 평가 할 수 없기에 몇 가지 틀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이 끝이 날 때마다 평가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상반기가 끝이 나거나 방중평가가 하반기 사업에 관한 평가를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반기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투쟁사업들을 좀 더 삽입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1. 대중사업

- 여름농활
-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 김하영 열사 추모제
- 여성문화제

2. 대중투쟁사업

- 전국여성농민대회
- 6.15통일대축전
- 전여대협 여름강좌. 수련회
- 경북여성농민통일한마당
- 8.15실천단
- 8.15 민족공동행사
- 여성캠페인
- 반성폭력테이블

- ★ 전교여학생대표자회의
- ★ 선거평가
- ★ 18대 총여학생회 전체평가

1. 대중사업

-여름농활<6월27일 ~ 7월6일, 경북 영주시 일대>

과제를 안고 시작한 농활이었다. 학교 중앙 농활준비단과 자료집준비 문제에서 농활성폭력의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많은 난항을 겪으며 시작되었다. 결국 농활성폭력의 문제는 사례예시를 제외하고 자료집에 개제되었다.

총여학생회 부회장과 정책국장이 농활본부팀으로 여성농민반을 전담하면서 합류하였고 4가지의 목표지점을 가지고 10일간의 농활을 계획하였다. 여성농민반의 활성화, 성폭력없는 농활만들기, 여학단위 일꾼 육성, 영주시에 여성농민회 건설! 매해마다 말로만 진행되는 농활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전의 방식을 모두 바꾸었다. 성폭력 없는 농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스티커 제작과 중앙에 이동성폭력 상담실을 두었고 각 마을을 지도할 때 짬막 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여성농민반을 활성화하는 것은 영주시에 여성농민회 건설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영주시 농민회와 경북여성농민회와 농활을 하기 1달여 전부터 함께 만나고 준비했다. 해마다 여성농민반이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은 마을별로 여성농민회나 여성농민주체가 없는 상황이 가장먼저 제기가 되고 문제가 되었다. 그러했기에 여성농민 주체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여성농민반을 만들어 나가고 주체 발굴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총여학생회 간부들이 경북여성농민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배운 레크레이션과 교양 자료들을 들고 직접 마을로 들어가 여성농민들과 여성농민반 그리고 농활대를 대상으로 교양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농활진행 9개 마을중에 6개마을을 진행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여성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단순히 농활에서만 성과지점들을 찾아내기 보다는 여성농민들을 한자리로 모아내기 위해서 제 9회 경북여성농민통일 한마당으로 집중을 시키고 이를 위해서 영주시 농민회와 함께 알려내고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여름 농활을 준비하고 만들어 감에 있어서 전년도와는 많이 다른 양상속에서 진행되었다. 연대의 의미를 단순히 농민회와의 관계정립과 동시에 여성농민회와의 간고한 연대의 틀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단순히 한해의 농활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함이 아닌 여성농민반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고 간고한 연대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러하기에 올해 총여는 농활에서의 모범을 창출해 내었으며 마을별 이동의 악조건 속에서도 6개 마을의 마을교양사업 진행과 성폭력 없는 농활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또한 단순히 마을 방문을 하고 교양만을 진행하기 보다는 함께 숙식을 하고 함께 근로를 하면서 직접 그 농활대원들속에서 물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여 농활대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가지 안타까운점들이 있다면 각 마을별로 농활의 준비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 9개 마을 전체에서 다 진행하지 못한점과 마을별 이동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없이 진행하다 보니 길거리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다.

내년 그리고 이후의 농활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연대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농민반 활동의 상의 정립등 많은 과제들도 분명 있지만 올해의 모습을 바탕으로 더욱 새롭게 변화 발전 할 것이다.

-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8월21일 ~ 31일, 대구.경북일대>

통일의 장!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열린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대구 시민들에게 그리고 2만의 영대 학우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올해부터 부쩍 그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일부 극우 보수세력의 충돌로 인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그 의미를 퇴색할때 했으나 다행히 무사히 치루어 지었다. 학내에서 통일 아리랑 응원단을 조직하여 활발히 움직였다.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기 보다는 스포츠를 통한 한민족의 바램을 함께 응원하였다.

방중이라 그리고 학우들이 학교에 많이 없는 8월이라 다양하고 많은 학우들과 함께 하진 못했지만 관심이 있는 많은 학우분들이 응원전에 함께 하였다.

총여학생회 역시도 총학생회와 더불어 학우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많은 홍보사업과 선전전등을 펼쳐 내었다.

또한 문과대 여학생회 천문경아 학우가 환영만찬에 초청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를 빛내고 왔다.

- 김하영 열사 추모제 <9월 6일 : 통일동산 , 8일 : 솟대마당>

총여학생회 정책국장이 총여학생회를 대표하여 추모제 준비위원이 되어서 움직였다. 9월6일 총여학생회에 일정이 여러 가지로 겹쳐서 다함께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각종선전작업과 홍보작업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해마다 진행된 것과는 달리 언니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후배들이 만든 추모제와 추모문화제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많은 폭우가 행사진행을 의심케 하였으나 다행히 무사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문과대 몸짓패의 활발한 비와 다양한 문화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보였다. 학우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였다.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2번의 문화제 형태로 진행을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어 오지 못하였다.

- 여성문화제 <10월 7일 ~ 8일, 천마로>

새로운 시도로써 여성문화제를 준비하였다. 8월 중순부터 중앙운위를 통해서 여성문화제 준비단을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논의 하였다. 또한 전체 여성문화제 준비단장에 부회장, 실무단장에 집행국장, 기획단장에 정행대 여학생회장이 주체가 되어서 준비를 했다.

새롭게 변화되고 정세에 맞는 기획을 내어오기 위해서 2가지의 주제로 기획안을 작성했다. 호주제 폐지와 반미반전 파병반대 의 내용으로 학우들의 의지를 모아내고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9월달이 되고 추석연휴와 학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빠른 기획안이 나오지 못하였고 또한 간부들과 회장단이 서로 다른 바쁜 일정들로 인해서 기획안의 내용이 모아지지 못한데다 주체 혼자 기획안의 고민을 가져가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린 것 만큼의 진행이 되지 못했다.

원래 9월중순에 기획되어 있던 것이 10월초로 연기가 되었고 준비할수 있는 시간들을 벌게 되었다. 또한 기획단의 불성실한 참여로 인해서 기획안의 준비가 실무주체에게로 넘어갔고 기획안 역시 1여년간의 사업들을 모두 총화해 내는 자리로 조금 바뀌었다.

성폭력 이야기는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성폭력 상담실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문화정착이라는 모토로 성인식 의식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메이크업 강좌는 공대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역시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그와 동시에 진행된 호주제 폐지 찬반토론회를 인문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4명의 찬반패널과 사회자 그리고 호주제 폐지에 관심이 많은 일반학우들이 함께 만들어 갔다. 준비가 부족하기는 했지만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밤에 진행된 여성영화제 상영에서는 500여명이 넘는 많은 학우들과 함께 웃으며 영화를 즐겼다. 둘째날은 경산시 여성농민회와 경산시 농민회와 함께 직거래 장터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1부, 2부, 3부로 진행된 각각의 마당에서는 비록 많은 학우들과 함께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총여학생회 사업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던져주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할 때 그런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사람이 얼마 왔느니 학우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니..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학생회가 갈수록 학우들로부터 괴리되고 현실속에서 학우들의 참여수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 참여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함께 만들어 감이 중요한 가장 큰 몫이라는 생각과 함께 내년 총여에서는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의 새로운 정형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2. 대중투쟁사업

-전국여성농민대회<6월10일 서울 여의도>

정책국장님을 중심으로 만 하루동안의 일정을 다녀왔다. 학기 중이라 많은 인원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님들의 투쟁의 모습을 세삼 실감하고 돌아왔다. 총여학생회가 투쟁을 함에 있어서 여학생회의 모순인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만으로 그쳤다면 이젠 투쟁으로 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했던 집회답게 많은 성과지점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우선은 농활을 준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많은 정치연설과 여성농민회 회원들과의 토론들속에서) 또한 연대의 관점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들의 제출 역시 함께되었다.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함께하진 못했지만 여성농민의 뼈아픈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6.15통일대축전 <6월14일 ~ 15일 , 서울 홍익대>

정책국장이 총여학생회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1학기 기말고사와 상반기 정리, 농활준비관계로 혼자서만 참석을 하였다.

-전여대협 여름강좌. 수련회 <7월 17일~19일, 서울한양대>

정책국장과 정행대 여학생회장이 중심이 되어서 다녀왔다. 기존의 수련회라고 하면 짧은 교양과 토론이 전부를 이루었지만 1박2일동안에 많은 여학생운동의 기본지식이 되는 강좌들을 듣고 토론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강좌의 참여대상역시 단순히 여학생운동을 하는 일꾼들의 중심이 아닌 일반학우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정파를 넘어서 다양하게 여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경북여성농민통일한마당<7월 24일, 경북 고은사>

여름농활의 한가지 목표였던 내실있는 연대사업과 영주시 여성농민회 건설이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행사였다. 정책국장이 행사 3일전에 먼저 영주에 들어가 어머님들을 모아내고 나머지 간부들과 회장단이 행사당일날 함께 하였다.

첫 행사치고는 많은 어머님들이 (대략 45분 정도) 참여하여 타 지역 여성농민회와 함께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많은 활동들을 하셨지만 중심기구가 없어서 그 날개를 펼쳐 내지 못하시던 분들이 여성농민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서는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여성농민회를 세워내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또한 지난 한달간 여성농민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성농민반 주체들과 각단위 여학생회 역시 많은 성과점들을 거두었다, 농활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어머님들과 함께 어울릴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후 계속 연락을 하는 진정 연대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8.15 민족공동행사 <8월 14일~16일, 서울 경희대>

부회장과 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참여했다, 또한 회장은 8.15민족공동행사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해마다 비가 많이 오기로 유명한 행사에 올해는 다행히도 비가 오지 않아 더 많은 활동들을 하였다.

-여성캠페인

매달 1번 지역에 있는 여성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매달 주어지는 여성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올해 몇차례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의 해고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성폭력 역고소 사건 문제, 호주제 폐지문제, 정신대 할머니 문제등, 학내 사업으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부분들을 비록 학우들을 상대로 펼친 사업은 아니지만 그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반성폭력데이블

매달 한두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대구 지역 대학들과 시민단체에서 함께 하였다. 무엇보다도 학교별 설문조사와 의견조사를 통해서 통계치를 배고 분석하여 사업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7월 말에 열린 반성폭력 문화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의 주체는 대구 여성회였습니다.)

★ 전교여학생대표자회의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하였던 전여대회를 하반기가 들어서자 말자 바로 진행하였다. 하

반기 투쟁의 총적방향을 제시하고 여성문화제의 준비단으로 함께할 것을 제안하였다, 3시간여에 걸쳐서 진행된 전여대회는 과 여학생회 부(장)으로 구성이 되었다. 총여중앙은 위는 당연히 포함이었다. 회칙의 모호한 부분의 제개정과 하반기 사업계획서의 발제, 반성폭력학칙 제 개정 사업문제 들을 포함하여 2개의 성명서 발표로 끝이 났다. 올한해 총여학생회의 가장 큰 화두였던 87개과 과 여부장 건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가지 못한 것이 전여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었다, 그러했기에 적은 수의 대의원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여학우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논의 할 수 있는 대의체계가 조금씩은 해가 거듭날수록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작년 첫회를 시작으로 올해의 모습은 작년보다는 많은 논의들과 토론 속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안착화된 준비흐름으로 준비의 미흡함은 많이 줄어들었다.

★ 선거평가

아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진행을 하여 이월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18대 총여학생회 전체평가

행동하는 9천 여성! 실천중심!

모토대로 열심히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으로 살아가는 한해였다. 회장의 상층단위 의장을 결의하고 적은 간부로 많은 총단위의 일을 책임져 나가기관 참 버거운 한해였다, 한해를 힘차게 결의하고 나섰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까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학생회가 그러하듯 여학생회 역시 1년단위로 바뀐다. 그러나 모든사업이 1년동안 해결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난다. 여학우 복지사업이 그중의 한예일 것이다. 몇 년의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총여학생회의 모든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기적인 전망과 낙관 속에서 단기간의 전망을 만들어 내고 풀어나가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2001년도부터 제기된 여학생회의 전문성 강화란 부분이 바로 그 것일 것이다. 그 전의 여학생회는 여학생회가 학생회의 하나의 부속기구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자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타 학교와 많은 교류와 여학 단위 일꾼들의 능력배양으로 인해서 18대에 거쳐서 많이 보강되고 실무적 능력은 타 어느 단위 못지 않게 뛰어났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왔고, 모든 사업들 역시 새로운 시도로 학우들과 함께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으며 각종 연대사업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갔다.

여성농민회와 여성노동자 여성 시민단체들과 활발한 연대의 사업을 펼쳐 내었으며 새 날열기, 비정규직어머님들의 날 등 기존에 있던 사업의 틀을 깨어버리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각단위 여학생회의 활발한 활동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위 여학생회의 내부 문제들과 역량부족과 등을 들수 있다, 상반기에 잘 진행되지 못했던 하방사업의 경우도 2학기 자원대, 정책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단위 지도의 혁신을 가져왔지만 다른 단위의 경우 여학생회장의 부재로 단위지도사업의 방향을 잡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 속에서 여성문화제가 진행이 되다보니 원래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여성문화제의 흐름

역시도 바뀌었다. 단위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었던 문화제의 진행이 총여학생회 여성문화제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아직 총여학생회의 과제들을 많이 남아있다. 총여학생회의 대중성장화, 대의체계마련, 여학생복지전문기구의 창설등 많은 과제들 속에서 18대 총여학생회를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용성이 담보, 보강되고 투쟁과 사업의 새로운 정형을 만들어 낸 한해라고 말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19대 총여학생회는 더욱 많은 노력들과 내용들 속에서 만들어 갈 것을 이야기 하고싶다.

아직은 이 평가가 여학생회 집행부간의 평가라서 그런지 많이 부족함이 보인다. 그러나 이후 올 한해를 함께 했던 모든사람들이 모여서 평가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곳에는 19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18대 총여학생회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D/상 / 2019년